

研究 노트

農村住民의 教育에 대한 意識과 子女就學率의 變化分析

李 永 大*

- I. 序 論
- II. 農村住民의 子女教育 期待 關聯意識構造 變化
- III. 農村住民 子女들의 就學率 變化
- IV. 農村住民의 農村學校教育環境 關聯 意識構造 : 離村 意向과 연관하여
- V. 分析結果와 政策的 含蓄性

I. 序 論

최근 20여년간 韓國社會의 급격한 變化는 農村住民들에게 큰 影響을 미쳤다. 그 중에서도 農村住民의 子女教育에 대한 意識은 크게 變化하였으리라 본다. 그러나 農村住民들의 子女教育에 대한 意識의 變化를 體系的으로 分析한 研究는 이제까지 많지 않은 편이다.

農村住民의 子女教育에 대한 意識과 더불어 그들 子女들의 就學率의 變化에 관한 資料는 더욱 귀한 편이다. 더구나 지난 1980년 教育改革에 힘입어 農村地域에도 大學生數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分析이 없었다. 이것은 그만큼 農村教育에 대한 關心이 약하고 모든 教育政策이 都市爲主로만 수행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뒤늦게나마 農村住民들의 教育에 대한 意識의 變化와 그들 子女의 就學率의 變化를 考察하는 것은 意義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視覺에서, 이 研究는 農村住民의 子女教育에 대한 意識의 變化를 파악하고 農村住民 子女의 就學增加 實態를 살펴보아 農村教育開發을 위한 基礎資料를 提示하는 데 目的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 研究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農村住民의 農村教育에 관한 既存文獻을 고찰하였으며, 1988년 農業振興公社와 全南大學校 農漁村開發研究所, 忠南大學校 農業技術研究所, 忠北大學校 地域開發研究所, 韓南大學校 產業經營研究所, 嶺南大學校 새마을·地域開發研究所 등에서 수립한 綜合開發基本構想 가운데 農村住民의 教育에 대한 意識을 다룬 15개 군 6,729명의 調查資料를 活用하였다. 分析의 편의를 위하여 15개 군을 類型別로 구분하였는데 陰城·唐津·扶餘郡은 平野地域으로, 永同·錦山·靑陽·義城·聞慶·星州·淸道郡은 準山間地域으로, 奉化·盈德은 山地地域으로, 高興·長興·珍島郡은 海岸島嶼地域으로 區分하였다. 區分基準은 이희연 등에 의해 연구된 「農漁村 地域의 類型別 綜合開發計劃

* 研究員

模型研究」(1986)에 근거하였다.

農村住民 子女의 就學率의 變化를 살펴보기 위하여 經濟企劃院의 人口 및 住宅센서스 결과보고서 中 教育程度別 人口資料(1966~85)를 分析하였다.

II. 農村住民의 子女教育 期待 關聯 意識構造 變化

近代的인 教育制度가 우리 나라에 導入된 이후 우리 나라의 學父母들은 學校教育에 큰 비중을 두어 왔다. 그러나 農村住民들은 지난 1950~60年代의 어려운 農村經濟 與件에 따라 “學校에 다녀서 쌀 한톨이 나오느냐”면서 子女教育을 시키지 않은 경우도 없잖아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어려운 與件 속에서도 子女에게 學校教育을 이수시킨 경우 그 子女들이 卒業後 都市로 進出, 公式部門에 就業하여 社會的 上昇移動을 하는 것을 지켜본 農村住民들의 子女教育에 대한 欲求是 變化하기 시작하였다. 農村地域 住民들의 욕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子女教育이며 이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農村地域住民들의 욕구 가운데 子女教育에 대한 욕구가 <表 1>과 같이 1973년 39.6%, 1979년 43.7%, 1984년 64.9%로 계속 높아 農耕地를 擴大하는 것과 住宅改良을 하는 것보다는 子女教育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다(李容晚·李永大 1985).

農村住民들의 子女教育에 대한 강한 欲求와 함께 그들 子女에 대한 教育期待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즉 <表 2>와 같이 지난 1950~60년대만 하여도 딸에게는 中學校 教育만을 시키겠다는 의견이 農村住民들에게 가장 많았으나 아들에 대해

表1 農村地域 住民들의 欲求變化, 1973~'84

	단위: % (名)		
	1973 ¹⁾	1979 ¹⁾	1984 ²⁾
자녀교육	39.6	43.7	64.9
농경지확대	19.0	8.7	16.8
좋은주택	5.5	6.7	5.4
높은지위(자리)	2.7	2.1	-
건강	20.7	14.4	-
기타	12.5	13.1	11.9
계 (조사대상자수)	100.0(1841)	100.0(231)	100.0(239)

자료: 1) 김대환외, 「고속도로 효과조사보고서」, 1979.

2) 박평식, “농가의 교육투자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1984.

表2 農村住民들의 子女에 대한 教育期待 變化

區分	아들 교육희망			딸 교육희망			조사 규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958 ¹⁾	69.7	16.0	14.3	87.9	10.7	1.4	(307)
1969 ²⁾	27.1	39.1	33.8	48.1	32.9	19.0	(258)
1979 ³⁾	1.9	42.7	55.4	9.1	69.1	21.8	(565)
1982 ⁴⁾	1.7	13.1	85.2	9.0	37.7	53.3	(420)
1985 ⁵⁾	1.0	3.4	95.6	1.2	29.3	69.5	(249)

1) 李萬甲, 「韓國農村的 社會構造」, 한국연구도서관, 1960.

2) _____, 「한국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73.

3) 이동규, “농민의 사회관과 교육관”, 「농촌경제」, 제2권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9.

4) 김문경의 5인 “농촌지역의 복지시설 현황조사와 그 대책”, 「새마을운동 연구논문집」, 제3권(下)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1982.

5) 李容晚, 李永大, 「농가의 교육비 투자와 농촌교육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서는 高等學校와 大學教育을 시키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딸에게도 高等學校 教育을 시키려는 農村住民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들에게는 大學教育을 희망하려는 農村住民이 가장 많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아들 딸 구별없이 모든 子女에게 大學教育을 시키려는 農村住民이 가장 많았다.

農業振興公社와 15개 地方大學에서 실시한 農漁村地域綜合開發計劃書(基本構想)를 綜合적으로 整理한 本分析에 의하면 아들과 딸에 대한 教育期待는 <表 3, 表 4>와 같다. 먼저 아들에 대한 教育期待를 보면 94.3%가 專門大學 以上の 教育을 시키려 하고 있어 <表 2>의 李容晚·李永大의 1985년 조사에 비하면 약간 낮았으나 전체적

表3 아들에 對한 教育期待

單位: 名, %

	平野地域	準山間地域	山間地域	計
高等學校以下	11(2.5)	85(3.8)	47(5.8)	143(4.1)
專門大學	25(5.6)	114(5.1)	58(7.1)	197(5.6)
大學校	306(68.9)	1515(67.2)	586(71.8)	2407(68.5)
大學院	88(19.8)	495(21.9)	128(15.7)	711(20.2)
其他	14(3.2)	38(1.7)	6(0.7)	58(1.6)
計	444(100.0)	2256(100.0)	816(100.0)	3516(100.0)

1) 調査未實施郡과 無應答者 資料인 3,213名 除外

表4 딸에 對한 教育期待

單位: 名, %

	平野地域	準山間地域	山間地域	計
高等學校以下	63(14.2)	410(17.6)	244(28.7)	717(19.8)
專門大學	59(13.3)	325(13.9)	143(16.8)	527(14.5)
大學(校)	230(51.8)	1,199(51.5)	329(39.6)	1,758(48.5)
大學院	40(9.0)	205(8.8)	62(7.3)	307(8.5)
其他	52(11.7)	191(8.2)	72(8.5)	315(8.7)
計	444(100.0)	2,330(100.0)	850(100.0)	3,624(100.0)

1) 調査未實施郡과 無應答者 資料인 3,105명 除外

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地域別로 큰 差異가 없었으나 山間地域일수록 高等學校 以下の 教育을 相對的으로 더 많이 시키려 하고 있었다. 딸에 대한 教育期待는 專門大學 以上이 71.5%로 1985년의 69.5%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었다. 地域別로는 山間地域에 비하여 平野地域으로 갈수록 大學校 以上 教育을 더 많이 시키려 하고 있었다.

앞에서 農村住民들이 子女들에게 높은 水準의 教育을 이수시키려 함을 살펴보았는데 그 理由는 <表 5>와 같다. 農村住民들이 子女에게 教育을 시키는 理由는 就業을 하도록, 子女의 出世를 위해, 經濟的으로 독립하도록, 생활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등의 個人의 이익을 위한 것이 큰 理由였다. 다음으로 올바른 人間이 되도록인 것과 個人의 個性과 재능을 살리고 知識과 技術을 습득하기 위한, 즉 個人의 內的인 成長에 관련된 항목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社會發展에 공헌키 위해서는 調査者에 따라 다르나 子女教育의

表5 子女를 教育시키는 理由變化, 1972~'85

단위: % (名)

	1972 ¹⁾	1980 ²⁾	1984 ³⁾	1985 ⁴⁾
취업·경제적독립을 위해	32.5	27.0	11.3	17.7
출세시키기 위해	16.0	18.0	31.0	21.7
올바른 인간이 되도록	7.1	—	27.2	41.8
개성과 재능을 살리도록	12.7	23.0	22.6	9.6
사회발전에 공헌토록	18.5	26.0	—	6.8
기 타	13.2	6.0	7.9	2.4
計 (조사인원수)	100.0 (75)	100.0 (111)	100.0 (239)	100.0 (249)

자료: 1) 朴俊熙, "한국 농민의 자녀교육 태도(I)", 梨大 韓國文化研究院 「論叢」 19(1972), p.103.

2) 金文植外, "80年代를 내다 본 農村 새마을運動의 方向에 관한 研究", 「새마을 運動 研究論叢」5(1980), p43.

3) 朴坪滉, "農家の 教育投資에 관한 研究",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4, p34.

4) 李容晚, 李永大 「農家の 教育費 投資와 農村教育開發」,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5, p. 15.

理由로는 낮은 편이다.

農村住民들이 子女에게 教育을 시키는 理由의 하나로 "子女들이 社會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이란 내용과 관련되는 응답비율이 높았는데 과연 農村住民들은 子女에게 어떤 職業을 갖기를 바라고 있는가?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子女에게 農業을 시키려는 農村住民의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즉 지난 1965년에는 子女에게 農業을 시키려는 農村住民이 52%였으나 1970년 중반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1984년에는 불과 5.9%에 불과하였다. 農民들은 子女에게 짐차 農業 이외의 職業을 원하고 있는데 그 중 공무원, 기술자, 회사원이 높게 나타났다.

以上的 農村住民들의 教育期待를 살펴보았을 때 農村住民들은 자신들이 높은 教育을 이수받지 못한 것<表 7참조>에 대한 보상심리와 子女가 教育을 통한 社會的 上昇移動(social upward mobility)에 대한 바람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나라에서 農村住民의 子女들도 都市住民의 子女들과 均등한 수준의 學歷을 나타내었다더라면 農村 出身도 都市에서 비슷한 地位 획득이 가능하였다는 주장(Koo and Barringer, 1977)에서도 그

表6 子女에게 希望하는 職業의 變化, 1958~'84

單位: % (名)

		1958 ¹⁾	1965 ²⁾	1974 ³⁾	1978 ⁴⁾	1982 ⁵⁾	1984 ⁶⁾
농업		29.4	52.1	27.1	6.7	8.7	5.9
비	소계	70.6	47.9	72.9	93.3	91.3	94.1
	교사	-	1.2	9.6	9.4	9.8	6.3
농	공무원	10.7	12.1	-	23.1	27.2	25.5
	상업	19.1	7.9	16.5	9.5	15.8	5.0
업	회사, 간호원	14.4	10.3	-	23.2	9.0	17.6
	의사, 간호원	-	-	-	6.2	3.0	2.1
기	정치, 법관	9.2	-	6.9	-	2.3	11.8
	기술자	10.7	10.9	25.0	15.2	10.2	19.7
기	기타	6.6	5.5	14.9	6.7	14.0	6.1
	총(조사인원수)	100.0 (272)	100.0 (165)	100.0 (253)	100.0 (1,500)	100.0 (793)	100.0 (239)

- 자료: 1) 이만갑, 「한국농촌의 사회구조」, 한국연구총서 제5집, 1960.
 2) 노창섭의, 「개발과정에 있는 농촌사회연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1965.
 3) 함종한, 정지웅, 「농촌 현장 실습 부락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전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6권1호 1974.
 4) 최민호의, 「농촌 청소년 선도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농과대학, 1978.
 5) 홍성찬, 「구역단지역의 농업종합개발계획」, 「새마을 운동 연구논총」 7권4호, 1982.
 6) 박평식, 「농가의 교육투자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表7 地域別 年齡別 住民의 平均學歷, 1985¹⁾

單位: 年

	6-19歲	20-29歲	30-39歲	40-49歲	50歲以上	平均
都市	10.3	11.4	10.8	10.0	8.8	10.5
邑	10.0	10.6	9.5	8.1	7.4	9.3
面	9.8	10.6	8.4	7.2	6.9	8.4
計	10.1	11.0	10.3	9.2	8.1	10.0

- 1) 人口 및 住宅센서스 結果報告(1985)의 年齡 및 教育程度別 人口(6歲以上)중 卒業者의 學歷을 分析한 것임. 국민학교 졸업자는 6년, 중학교졸업자는 9년, 고등학교 졸업자는 12년, 초대 및 전문대졸업자는 14년, 대학이상은 16년으로 계산하였음.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우리 나라는 學歷別 賃金隔差가 심한데 (表 8) 과 같이 최근 그 격차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특히 大學卒業者와 그 以下 卒業者間의 賃金隔差가 매우 크다. 이것이 農村住民들이 子女教育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원인이 되리라 본다.

表8 年度別, 學歷別 賃金¹⁾

單位: 원, %

學 歷	全 學 歷		中 卒 以 下		高 卒		初 大 (專 門) 卒		大 卒 以 上	
	年 度	水 準	水 準	水 準	水 準	水 準	水 準	水 準	水 準	
1987	322,446	128.4	251,029	100.0	296,984	118.3	373,198	148.7	621,240	247.5
1986	293,633	130.3	225,363	100.0	274,121	121.6	351,330	155.9	574,745	255.0
1985	268,766	131.7	204,019	100.0	257,297	126.1	333,259	163.3	552,460	270.8
1984	252,302	130.5	193,279	100.0	243,158	125.8	318,110	164.6	521,844	270.0
1983	233,256	133.0	175,325	100.0	227,996	130.0	317,471	181.1	488,563	278.7
1982	209,553	134.1	156,258	100.0	211,043	135.1	294,190	188.3	449,765	287.8
1981	180,837	132.5	136,528	100.0	186,193	136.4	262,123	192.0	396,373	290.3
1980	150,747	133.2	113,143	100.0	155,647	137.6	226,763	200.4	338,208	298.9
1979	126,544	135.5	93,370	100.0	134,492	144.0	196,853	210.8	293,936	314.8
1978	92,611	138.4	66,904	100.0	102,268	152.9	152,444	227.9	227,259	339.7
1977	69,190	139.2	49,701	100.0	78,195	157.3	115,307	232.0	174,669	351.4
1976	57,538	143.6	40,081	100.0	64,138	160.0	93,807	234.0	144,148	359.6

- 1) 賃金은 定額 및 超過給與額 基準.
 資料: 勞動部, 「職種別賃金實態調查報告書」, 1987.

Ⅲ. 農村住民 子女들의 就學率 變化

農村地域 住民의 子女에 대한 教育期待가 높아지고 農村의 經濟與件이 성숙되면서 農村地域 住民 子女들의 就學이 增加하였다. 農村地域 住民 子女들의 就學增加 變化를 살펴보자.

〈그림 1〉은 지난 1970년에서 1985년까지 面地域 男女人口의 各 年齡別 人口 가운데 學生人口의 比率을 나타낸 것이다. 1970년의 경우 6~11 歲層은 性別에 關係없이 거의 完全 취학하였으나 12~18 歲層은 學生比率이 낮았으며, 性別로는 男子가 女子에 比하여 훨씬 높았다. 1985년의 경우 6~14 歲層은 거의 完全就學하는 상태였으며 高等 學校와 大學生 해당 연령층의 學生比率이 크게 증가하였다. 性別로 差異가 거의 없었으며 21 歲 以上 年齡層의 學生比率에서는 男子가 女子보다

높은 편이었다.

〈그림 2〉는 地域別로 1985년의 年齡別 學生人口 比率을 비교한 것인데 15 歲까지는 地域別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16~18 歲層은 약간 차이가 있었으나 19 歲 以上에서는 地域別로 큰 차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즉 19 歲 以上에서 面地域 住民 子女의 就學率이 가장 낮고 다음이 邑地域 住民 子女이고, 市地域 住民 子女의 就學이 가장 높았다.

이렇게 農村地域 住民 子女들의 就學이 증가되어 各級學校 學生人口가 크게 증가하였다. 地域別 學生人口의 變化는 〈表 9〉와 같다. 面地域 國民學生이 지난 1970년에서 1985년 사이에 年平均 6.26%씩 감소하여 뚜렷한 特征을 나타내고 있었다. 面地域 中學生과 邑地域 國民學生도 1980 年 이전에는 계속 증가하다가 1980~85년 사이에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그밖의 다른 地域의 다른

그림 1 面地域 男女 各年齡別 學生人口 比率의 變化, 197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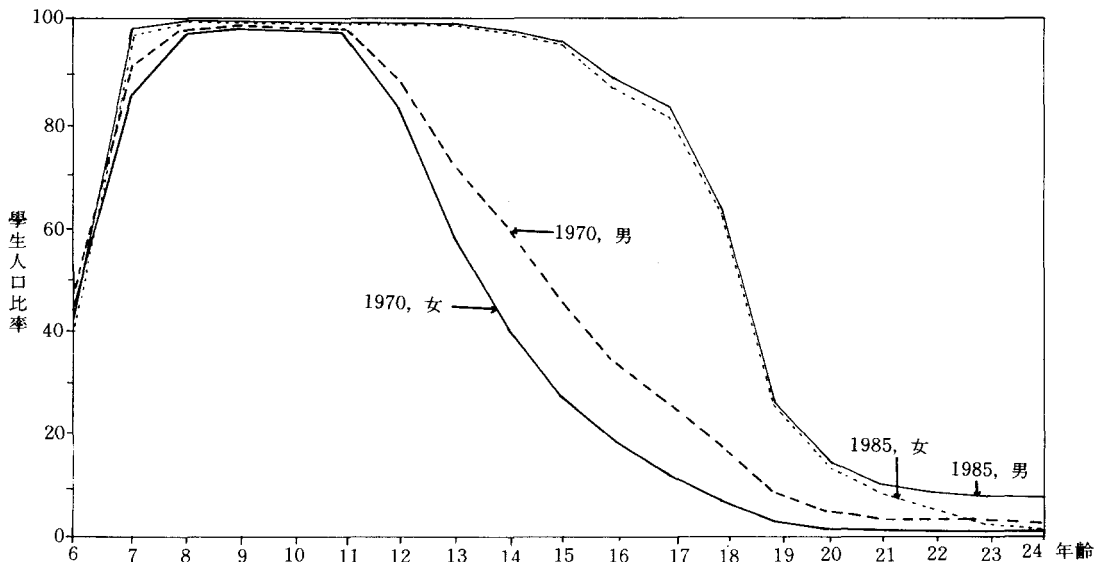


그림 2 各地域別 年齡別 學生人口比率 比較,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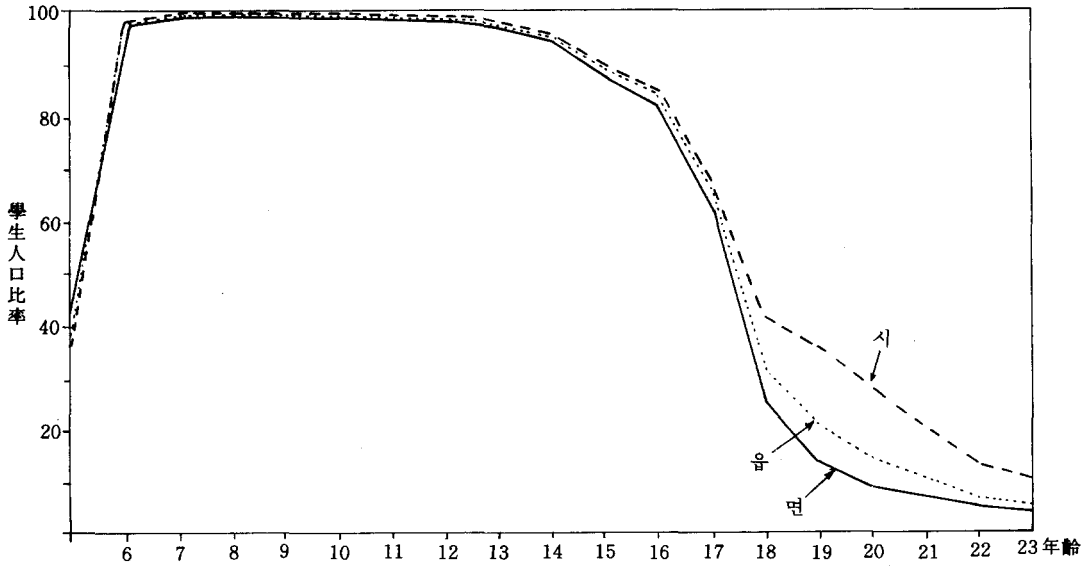


表9 地域別 各級學校 學生 變化

單位：名, %

		1966	1970	1975	1980	1985	年平均增減率
國民 學校	市 部	1632511	1986633	2229578	2928060	3037308	3.32
	郡 邑		534899	615529	692548	604671	0.82
		面		3207700	2603851	1922957	1216217
	部 小計	3454323	3742599	3219380	2615505	1820888	-3.31
	全 國	5086834	5729232	5448958	5543565	4858196	-0.24
中學校	市 部	411085	707240	983210	1212392	1692799	7.73
	郡 邑		141949	230488	305880	333624	5.86
		面		539810	856390	916934	739691
	部 小計	422079	681759	1086878	1222814	1073315	5.03
	全 國	833164	1388999	2070088	2435206	2766114	6.52
高等 學校	市 部	310671	435269	799712	1135735	1627552	9.11
	郡 邑		58333	125717	229788	291844	11.33
		面		122121	246347	390239	456773
	部 小計	139496	180454	372064	620027	748617	9.25
	全 國	450167	615723	1171776	1755762	2376169	9.15
2年制 大學	市 部	20185	31334	55618	60128	152848	11.24
	郡 邑		3152	6520	10184	25954	15.10
		面		4771	9586	10350	29456
	部 小計	6807	7923	16106	20534	55410	11.67
	全 國	26992	39257	71724	80662	208258	11.35
4年制 大學(校)	市 部	142282	152474	245733	425595	854357	9.89
	郡 邑		6008	11128	24852	58904	16.44
		面		13619	22214	25375	64378
	部 小計	21847	19627	33342	50227	123282	9.54
	全 國	164129	172101	279075	475822	977639	9.85

資料：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 各年度

水準의 學校 學生數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農村地域의 大學生數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980년의 面地域의 大學生數는 25,375명, 邑地域의 大學生數는 24,852명으로 총 50,227명이었던 것에 비해 1985년에는 面地域이 64,378명으로 2.5배, 邑地域은 58,904명으로 2.4배가 증가하여 총 12만 3,282명으로 5년 사이에 2.5배나 늘어났다. 專門大學도 1980년 邑과 面을 합쳐서 20,534명에서 1985년 55,410명으로 2.7배나 증가하였다. 4年制大學生과 專門大學生을 합쳐서 邑과 面에서 178,692명으로 지난 1980년의 70,761명에 비하여 약 10만명 가량(2.5배) 증가하였다. 이같은 급격한 大學生 人口의 增加는 지난 1980년 教育改革 조치 이후 大學入學定員이 크게 늘어났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農村住民들의 教育期待 關聯 意識構造가 變化하였기 때문인 것 같다. 즉 農村에서도 大學을 나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되었기 때문인 것이다.

就學率(school enrollment ratio)은 각급학교 재학생수를 해당연령층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國民學校는 國民學校 學生數를 6~11세 연령층으로, 中學校는 中學生數를 12~14세 연령층으로, 高等學校는 高等學生數를 15~17세 연령층으로, 高等教育機關은 高等教育機關 在學生數를 18~21세 연령층으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表 10>은 1966년에서 1985년까지 지역별 各級 學校 級別 就學率을 나타낸 것이다.

國民學校 교육은 政府에서 法으로 정하여 해당 연령층에 있는 자녀들을 父母들이 의무적으로 취학시키게 되어 있어 都市·農村 모두 취학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1966년까지만 하여도 의무교육법을 위반하면서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으나 1970년 이후부터 國民學校의 취학대상 아동은 거의 완전취학하는 수준에

表10 年齡別·集團別 就學率의 變化

單位：%

		1966	1970	1975	1980	1985
國民	都市	97.6	101.1	101.1	99.4	100.6
	農村	96.2	103.2	104.7	102.9	104.4
	全國	96.6	102.4	103.2	101.0	102.0
中學校	都市	59.8	71.2	81.8	94.5	98.6
	農村	32.9	46.0	68.4	94.7	99.8
	全國	42.3	56.1	75.2	94.6	99.1
高等	都市	48.0	43.2	55.8	76.3	89.7
	農村	14.1	17.7	29.7	57.7	80.0
	全國	27.5	30.5	43.6	68.5	86.4
大學(校)	都市	19.9	16.6	21.8	22.1	44.9
	農村	2.5	2.8	3.3	5.9	18.6
	全國	9.7	10.1	12.2	16.4	37.0

資料：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 各年度

이르렀다.

中學校의 경우는 1966~75년에는 都市가 農村에 비해 就學率이 매우 높았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까지 되었다. 農村의 高等學校 就學率도 크게 증가하였지만 아직도 都市에 비해 약간 떨어지고 있다.

2年制 短期高等教育機關(專門大學 수준)을 포함한 高等教育機關의 就學率도 크게 늘었다. 1980년 교육개혁조치 이후 都市의 大學生 就學率이 5년 사이에 2.03배 증가하였으며 農村의 大學生 就學率은 3.15배 증가하였다.

IV. 農村住民의 農村學校教育環境 關聯 意識構造：離村意向과 연관하여

農村住民들의 子女教育의 重要性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子女教育에 대한 欲求가 증대되어 子女教育에 대한 教育期待가 높아져 왔다. 이로 인해 農村住民들은 子女 教育의 現場인 農村學校 教育環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農村住民들은 都市에 비교한 農村生活에 대하여 많은 不滿을 갖고 있었다. <表 11>은 農村住

表11 都市-農村間에 가장 差異가 많이 나는 內容
단위: % (名)

	1973 ¹⁾	1979 ²⁾	1985 ³⁾
자녀교육	21.7	28.3	25.3
문화(음악, 체육)시설	13.7	17.6	2.8
소득	39.3	27.7	29.7
취업기회	10.3	8.7	26.9
사회진출	11.1	10.6	14.1
기타	3.9	7.1	1.2
계 (조사인원수)	100.0 (1,840)	100.0 (2,311)	100.0 (249)

자료: 1) 김대환, 「고속도로효과조사보고서」, 건설부, 1973.
2) 김대환, 「고속도로효과조사보고서」, 건설부, 1979.
3) 李容晚, 李永大, 「農家の教育費投資와 農村教育開發」,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96, 1985.

민들의 都市와 農村間에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內容에 대한 의견이다. 都農間에 가장 차이가 많은 內容으로는 農村住民의 30%가 所得을 들었으며, 다음으로는 就業機會로 27%, 子女教育이 25.3%로 子女教育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農村住民들이 農村에 居住하면서 子女를 教育시키는 데 불편한 사항을 보면 <表 12>와 같이 教育費 過多가 39.4%로 가장 높았으며, 農村의 學校水準 低下가 31.3%로 이 두 항목이 매우 높았

으며, 그밖에 學校遠距離가 14.2%, 教育環境不利가 11.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農村住民들이 農村에 居住하며 子女를 教育시키는 데 있어서 教育費의 過多支出로 인한 農家經濟에 압박을 느끼는 것과 農村學校 水準의 低下와 學校教育環境不利에도 큰 불만을 갖고 있었다. 아울러 農村地域의 各級學校의 分布上에 나타나는 문제에서 오는 遠距離通學 問題도 불편사항의 하나였다. 地域別로 보면 子女教育 不便理由가 地域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平野地域에서 山間地域이나 海岸地域으로 갈수록 教育環境의 不利함을 子女教育의 不便事項으로 더 많이 들고 있었다.

農村住民들이 農村에서 子女들을 教育시키고 있음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가를 보려면 農村住民들의 離住와 教育과의 關聯性을 검토하면 알 수 있다. <表 13>은 農漁村住民들이 居住地域別로 地域이 現狀態로 계속 維持될 때의 移住意思를 調査한 결과인데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경우는 24.1%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75.9%

表12 子女教育 不便理由

單位: 名, %

	平野地域	準山間地域	山間地域	海岸地域	計
學校遠距離	261(15.2)	320(14.2)	122(14.4)	161(12.8)	819(14.2)
學校水準低下	403(28.4)	748(33.3)	266(31.3)	390(31.1)	1,807(31.3)
教育費過多	639(45.0)	857(38.1)	341(40.1)	440(35.1)	2,277(39.4)
教育環境不利	117(8.2)	262(11.6)	107(12.6)	180(14.4)	666(11.5)
其他	46(3.2)	104(4.6)	14(1.6)	41(3.3)	205(3.6)
計	1,421(100.0)	2,249(100.0)	850(100.0)	1,254(100.0)	5,774(100.0)

1) 調査未實施部과 無應答者 資料인 955名 除外

表13 地域이 現狀態로 維持될 때의 移住意思

單位: 名, %

	平野地域	準山間地域	山間地域	海岸地域	計
당장 떠나 가겠다	140(9.8)	466(14.4)	121(14.2)	224(18.5)	951(14.1)
몇년 후 떠나겠다	261(18.4)	652(20.1)	184(21.6)	238(19.6)	1,335(19.8)
자식세대만 떠나보내겠다	544(38.3)	1,368(42.1)	373(43.9)	489(40.3)	2,774(41.2)
떠날 생각이 없다	464(32.6)	745(23.0)	165(19.4)	250(20.6)	1,624(24.1)
기타	13(0.9)	13(0.4)	7(0.8)	12(1.0)	45(0.7)
計	1,422(100.0)	3,244(100.0)	850(100.0)	1,213(100.0)	6,729(100.0)

는 그 지역을 떠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그 중에는 자식 세대만 떠나보내겠다는 意見이 41.2%나 되었으나 이것은 間接的인 移住希望意思로 간주하였다). 그 地域으로부터 移住하려는 意思를 가진 住民들 가운데 당장 떠나겠다고 14.1%이며 몇년 후에 떠나겠다고 19.8%로 각각 나타났다. 地域別로는 平野地域에 비하여 山間地域과 海岸地域의 住民들이 당장 떠나겠다고 몇년 후 떠나겠다고의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었다.

移住希望地域은 <表 14>와 같이 道內 都市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他道 都市가 16.6%, 서울이 14.9%로 이들 3지역을 합하면 77%가 都市로 移動하려는 意思를 갖고 있었다. 그밖에 郡內가 4.6%, 道內農村이 7.3%, 他道農村이 2.3%로 農村地域으로의 移住意思는 낮은 편이었다. 地域別로는 地域에 관계없이 都市로 移住하려는 意思가 높았으며 특히 平野地域으로

갈수록 道內 都市로의 移住意思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移住希望者의 移住事由로 보면 <表 15>와 같이 子女教育이 어려워서가 33.7%로 가장 높았으며, 所得이 적어서가 25.2%, 地域發展의 不透明이 1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職業이 맞지 않아서가 3.3%, 生活施設이 나빠서가 6.3%, 家族등과 結合하기 위하여가 2.2%로 낮은 편이었다. 地域別로 移住事由를 보면 地域에 관계없이 子女教育이 어려워서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準山間地域이 37.2%로 다른 地域에 비해 높았으며 平野地域이 35.5%, 海岸地域이 31.2%, 山間地域이 2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農漁村教育 환경에 대해 農漁村住民들이 많은 不滿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農漁村住民들은 農村教育環境改善에 대하여

表14 移住希望地域

						單位：名，%
		平野地域	準山間地域	山間地域	海岸地域	計
郡	內	77(7.1)	122(4.2)	25(2.9)	59(4.9)	283(4.6)
道	內 農 村	83(7.7)	199(6.8)	70(8.2)	94(7.7)	446(7.3)
道	內 都 市	522(48.3)	1,409(48.1)	347(40.8)	482(39.7)	2,760(45.5)
他	道 都 市	129(11.9)	587(20.1)	115(13.5)	175(14.4)	1,006(16.6)
서	울	179(16.6)	352(12.0)	92(10.8)	280(23.1)	903(14.9)
他	道 農 村	21(1.9)	57(1.9)	24(2.8)	40(3.3)	142(2.3)
其	他	69(6.5)	201(6.8)	177(20.8)	83(6.8)	530(8.7)
計		1,080(100.0)	2,927(100.0)	850(100.0)	1,213(100.0)	6,070(100.0)

1) 調査未實施郡과 無應答者 資料인 659명 除外

表15 移住希望者의 移住希望理由

						單位：名，%
	平野地域	準山間地域	山間地域	海岸地域	計	
子女教育이 어려워서	139(35.5)	978(37.2)	215(25.3)	378(31.2)	1710(33.7)	
職業이 맞지않아서	11(2.8)	78(3.0)	18(2.1)	61(5.0)	168(3.3)	
所得이 적어서	86(21.9)	664(25.3)	202(23.8)	329(27.1)	1281(25.2)	
生活施設이 나빠서	21(5.4)	152(5.8)	41(4.8)	105(8.7)	319(6.3)	
地域發展의 不透明	56(14.3)	489(18.6)	178(20.9)	228(18.8)	951(18.7)	
家族等과 結合하기위하여	15(3.8)	53(2.0)	21(2.5)	23(1.9)	112(2.2)	
其 他	64(16.3)	212(8.1)	175(20.6)	89(7.3)	540(10.6)	
計	392(100.0)	2,626(100.0)	850(100.0)	1,213(100.0)	5,081(100.0)	

1) 調査未實施郡과 無應答者의 資料인 1648名 除外

表16 教育環境改善意思

單位：名, %

	平野地域	準山間地域	山間地域	計
教育設施의 近代化	245(26.1)	928(29.5)	267(31.4)	1,440(29.2)
教育의 質 方向	224(23.9)	926(29.4)	273(32.1)	1,423(28.8)
幼稚園 新設	36(3.8)	62(2.0)	22(2.6)	120(2.4)
中·高等學校 新設	115(12.3)	287(9.1)	60(7.1)	462(9.4)
大學(校)·專門大新設	195(20.8)	399(12.7)	71(8.4)	665(13.5)
通學便宜設施 擴充	90(9.6)	413(13.1)	126(14.8)	629(12.8)
其他	32(3.4)	131(4.2)	31(3.6)	194(3.9)
計	937(100.0)	3,146(100.0)	850(100.0)	4,933(100.0)

1) 調査未實施郡과 無應答者 資料인 1,796名 除外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表 16>은 農漁村住民의 農漁村教育環境改善意思를 나타낸 것인데 教育設施의 近代化가 29.2%로 가장 높았으며, 教育의 質 向上이 28.8%, 大學·專門大學 등 高等教育機關의 新設이 13.5%, 通學便宜設施 擴充이 12.8%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그밖에 中高等學校 新設이 9.4%, 幼稚園 新設이 2.4%로 거의 응답비율이 낮았다. 地域別로는 山間地域으로 갈수록 教育의 質 向上, 教育設施의 近代化, 通學便宜設施의 擴充을 많이 들고 있었으며, 平野地域으로 갈수록 大學(校)·專門大學 新設과 中等學校 新設을 더 많이 바라고 있었다.

V. 分析結果와 政策的 含蓄性

이상에서 農村住民들의 子女에 대한 教育欲求와 期待, 實際 農村住民 子女들의 就學率 變化, 農漁村 住民들의 農漁村教育環境에 대한 意識을 移住意向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그 主要 結果를 要約하면 農村住民의 子女教育에 대한 欲求가 점차 커져 가며 子女에 대한 教育期待 또한 높아졌다. 이렇게 農村住民들의 子女教育 期待가 높은 것은 農村住民들(특히 장년

층)은 비교적 높은 水準의 教育을 履修하지 못하여(그에 따라 學歷別 所得隔差를 경험하였음) 그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970년대만 하여도 農村에는 中學校 以上 各級學校 學生人口중 상당 비율이 學校에 就學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農村도 學生比率이 急增하여 18歲 以下(高等學校 水準까지)는 地域에 관계 없이 거의 비슷한 就學率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以上의 年齡層(大學生에 해당됨)에서는 面과 邑 地域 住民 子女의 就學이 都市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地域別 各級學校 學生의 變化를 보면 지난 1970년 이후 面地域 國民학생이 年平均 6.26%씩 감소한 것과 1980년 이후 面地域 中學生과 邑地域 國民學生까지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980년의 教育改革 이후 農村에도 大學生人口가 急增하였는데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2.5배나 증가하였다.

農村住民 가운데 76%가 離村할 意思가 있음이 나타났고,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으로 子女教育이 어려워서로 분석되었다. 또 農村住民들이 子女教育에서 不便理由로 教育費 過多, 學校水準 低下, 學校 遠距離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불편사항에 대한 對策이 필요하다고 본다.

農村住民의 教育에 대한 意識과 子女들의 就學

率 變化를 分析한 結果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政策的인 對策이 必要하다고 본다.

첫째, 農村住民의 離村 理由의 하나인 農村의 學校水準 低下에 대한 政策的 檢討가 있어야 하겠다. 農村의 學校水準 低下는 農村學生들의 學力이 都市學生에 비해 떨어지며 上級學校 進學率도 都市學生에 비해 農村學生이 크게 낮은 데서 살펴볼 수 있다. 農村의 學校水準 低下의 原因으로 學生의 諸特性(知能, 興味, 成就動機)과 學習習慣, 教師의 特性和 授業(教育)活動, 學校의 諸條件(學校規模, 學級規模) 施設, 學校·學級の 分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전반적인 教育關聯 要因에서 農村의 學校가 都市에 비해 不利한 것이 현실적이다. 이들 항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對策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우선 農村學校에 대한 보다 많은 政策的 關心이 쏟아져야 하겠다. 農村의 各級學校들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學父母들에게서 不信을 받고 國民學校의 경우 在學生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政策的 關心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1988년의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 修正計劃(1988~91)에서도 農村學校教育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는 실정이다.

둘째, 農村住民 子女의 就學離村과 大學生人口의 增加로 家計費 중 教育費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對策이 必要하다. 李容晚·李永大(1985)의 조사에 의하면 農村高等學生의 32%와 農村大學生의 84%가 離村就學을 하고 있었다. 또 離村就學生의 3.3%만이 기숙사에 숙식하고 있다. 이들 離村就學生들은 숙식비와 離村就學地까지의 교통비 등 學校의 등록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또한 크다.

앞에서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農村住民 子女의 大學生數가 10만명, 비율로는 2.5배나 증가

한 것을 살펴보았다. 農村大學生 가운데 불과 25%만이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는 상황(李容晚·李永大, 1985)에 비추어 볼 때 農村住民들의 大學生 子女에 대한 教育費 부담은 매우 크다. 더구나 農家負債 增加가 農家の 所得增加를 몇 배 웃도는 어려운 農村經濟에서 教育費는 큰 부담이 된다. 그에 따라 農家家計費 중 教育費가 1987년 58만 6천원으로 전체 家計費의 11.3%를 차지하며 都市勤勞者家口の 31만 4천원보다 1.9배(都市家口の 1.6배)나 많은 수준에 있다(表 17). 政府는 農漁村住民의 子女教育費가 家計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農村出身 大學生들이 卒業 후 就職을 하여 갚을 수 있는 長期 低利의 融資를 擴大하고 大學의 기숙사 신축을 대폭 지원, 염가로 學生들이 利用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先進外國과 같이 國家가 義務教育으로 各級學校教育을 擴大하여야 하겠다(우선 農漁村地域에서라도).

셋째, 지난 1966년 이후 해마다 6.26%씩 급격하게 감소하는 農村의 國民學校와 최근에 그 學生數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農村中學校에 대한 對策이 있어야 하겠다. 農村地域에는 靑壯年層의 離村으로 各級學校 就學對象人口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農村의 學校와 學級이 零細化되고 있다. 農村 教育機關의 零細化는 教育費投資 增大要因의 發生, 學生들의 學力低下, 農村學生들의 通學不便, 教室의 유희화와 教師의 士氣低下 등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앞으로 더욱 零細化되리라 예상되는 現在의 農村學校教育을 위하여 通學버스 支援을 前提로 한 學校統廢합이 추진되어야 하겠다. 政府는 지난 1982년부터 農村國民學校 統廢합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通學버스 支援이 전국적으로 3개 국민학교에만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農村住民들의 子

表17 農家口, 都市 勤勞者家口, 都市家口의 年間教育費¹⁾比較

단위: 천원, %

	農 家 口			都 市 勤 勞 者 家 口			都 市 家 口		
	家計費(A)	教育費(B)	B/A(%)	家計費(C)	教育費(D)	D/C(%)	家計費(E)	教育費(F)	F/E(%)
1974	435.4	27.8	6.4	494.0	32.0	6.5	535.5	39.9	7.5
1975	616.3	38.4	6.2	682.7	42.5	6.7	726.6	47.5	6.5
1976	749.2	58.4	7.8	853.8	55.0	6.4	910.2	63.2	6.9
1977	976.4	79.3	8.1	994.0	60.6	6.1	1,048.9	67.2	6.4
1978	1,320.5	105.4	8.0	1,317.6	70.3	5.3	1,401.8	78.7	5.6
1979	1,662.2	146.5	8.8	1,743.8	101.0	5.8	1,857.9	112.4	6.1
1980	2,138.3	200.3	9.4	2,105.7	114.9	5.5	2,252.7	125.7	5.6
1981	2,676.1	253.3	9.5	2,561.1	144.5	5.6	2,705.9	155.2	5.7
1982	3,257.8	345.1	10.6	2,869.2	164.5	5.7	3,187.2	201.0	6.3
1983	4,053.7	444.7	11.0	3,173.5	186.6	5.9	3,506.9	213.6	6.1
1984	4,272.0	492.1	11.5	3,460.8	213.5	6.2	3,832.2	246.5	6.4
1985	4,691.0	555.3	11.8	3,715.2	232.8	6.3	4,159.2	280.0	6.7
1986	4,994.7	586.4	11.7	4,068.1	272.0	6.7	4,560.3	313.5	6.9
1987	5,200.6	586.4	11.3	4,659.6	314.9	6.8	5,266.5	375.0	7.1

1) 문방구, 교양, 오락비 제외

資料: 經濟企劃院, 「韓國統計月報」, 1974. 1~1989. 2.

女教育 不便事項의 하나인 通學不便(李容晚·李永大의 조사에서는 학교와 부락간에 평균 1.8km 떨어져 있고 吳乃元 등의 조사에 의하면 부락과 國民學校와의 통학에 도보로 76분, 버스로 25분이나 소요되고 있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農村地域 學校에 通學버스 支援이 시급하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人口 및 住宅센서스 結果報告」, 1966, 1970, 1975, 1980, 1985.
 金大煥外, 「高速道路 效果 調査 報告書」, 建設部, 1979.
 金文經外 5人, 「農村地域의 福祉施設 現況調査와 對策」, 「새마을 運動 研究論文集」, 제3卷(下), 1982.
 金文植外, 「80年代를 내다본 農村 새마을運動의 方向에 관한 研究」, 「새마을運動 研究論叢」5, 1980.
 勞動部, 「職種別 賃金實態 調査報告書」, 1987.
 盧昌燮外, 「開發過程에 있는 農村社會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1965.
 農業振興公社, 全南大學校 農漁村開發研究所, 「高興郡 農漁村地域綜合開發計劃(案): 開發計劃의 基本構想」, 1988. 11.

_____, 「長興郡 農漁村地域綜合開發計劃(案): 開發計劃의 基本構想」, 1988. 11.
 _____, 「珍島郡 農漁村地域綜合開發計劃(案): 開發計劃의 基本構想」, 1988. 11.
 農業振興公社, 忠南大學校 農業技術研究所, 「唐津郡 農漁村地域綜合開發計劃: 開發計劃의 基本構想」, 1988. 11.
 _____, 「扶餘郡 農漁村地域 綜合開發計劃: 開發計劃의 基本構想」, 1988. 9.
 _____, 「青陽郡 農漁村地域 綜合開發計劃: 開發計劃의 基本構想」, 1988. 11.
 農業振興公社, 忠北大學校 地域開發研究所, 「永同郡 農漁村地域綜合開發計劃: 開發計劃의 基本構想」, 1988. 12.
 _____, 「陰城郡 農漁村地域 綜合開發計劃 基本構想(案)」, 1988. 9.
 農業振興公社, 韓南大學校 產業經營研究所, 「錦山郡 農漁村地域綜合開發計劃(案)」, 1988. 11.
 朴坪湜, 「農家の 教育投資에 관한 研究」, 全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4.
 朴俊熙, 「韓國 農民의 子女教育 態度(Ⅰ)」, 「論叢」19,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1972.
 嶺南大學校 새마을·地域開發研究所, 「開慶郡 綜合開發 基本構想」, 1988. 12.
 _____, 「奉化郡 綜合開發 基本構想」, 1988. 12.
 _____, 「星州郡 綜合開發 基本構想」, 1988. 12.
 _____, 「盈德郡 綜合開發 基本構想」, 1988. 12.
 _____, 「義城郡 綜合開發 基本構想」, 1988. 8.

- _____, 「清道郡 綜合開發 基本構想」, 1988. 12.
- 吳乃元外, 「韓國農村 社會經濟의 長期變化와 發展, 1985~2001」,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 李東奎, 「農民의 社會觀과 教育觀」, 「農村經濟」, 第2卷 第1號,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79.
- 李萬甲, 「韓國農村의 社會構造」, 韓國研究圖書館, 1960.
- _____, 「韓國 農村社會의 構造와 變化」,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3.
- 李容晚·李永大, 「農家의 教育費 投資와 農村教育開發」,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96, 1985.
- 李永大, 「農家와 都市勞動者 家口의 教育費支出 比較 研究」, 「韓國農業教育學會誌」, 第19卷第4號, 1987.
- _____, 「農村地域 國民學校의 零細化와 適正配置方 向」, 「韓國農業教育學會誌」, 第20卷 第1號, 1988.
- _____, 「都市와 農村의 教育機會 不均衡」, 「韓國農業 教育學會誌」, 第20卷 第4號, 1988.
- 이희연외, 「농어촌지역의 유형별 綜合開發計劃 模型研究」, 農業振興公社, 1986.
- 崔敏浩外, 「農村靑少年의 善導教育에 關한 研究」,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1978.
- 咸鍾漢·鄭址雄, 「農村 現場實習部落의 社會經濟的 實態와 展望」, 「韓國農業教育學會誌」, 제6권 제1호, 1974.
- 洪性贊, 「구역말 地域의 農業綜合開發計劃」, 「새마을 運動 研究論叢」, 第7卷 第4號, 1982.
- Koo, Hagen and H. R. Barringer, "Cityward Migration and Socioeconomic Achievement in Two Korean Cities," *Rural Sociology* 42 (Spring 1977). pp.42-56.
- Landis, Paul H., "Educational Selectivity of Rural-Urban Migration and It's Bearing on Wage and Occupational Adjustments," *Rural Sociology* 11(Sep. 1946). pp.218-232.
- Lowe, George D. and Thomas K. Pinhey, "Do Rural People Place a Lower Value on Formal Education? New Evidence from National Surveys," *Rural Sociology* 45(Summer 1980), pp.325-331.
- Mueller, B. Jeanne, "Rural Family Lifestyle and Son's School Achievement," *Rural Sociology* 39 (Fall 1974), 362-372.
- Osborne, J.Grayson, "Rapid Community Growth and the Problem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Rural Sociology*, 49 (Winter 1984), pp.553-567.
- Schwarzeweller, Harry K., "Education, Migration and Economic Life Chances of Male Entrants to the Labor Force from a Low-Income Rural Area," *Rural Sociology* 29(June 1964), pp.152-167.
- Schwarzeweller, H. K., and James S. Brown, "Education as a Cultural Bridge between Eastern Kentucky and the Great Society," *Rural Sociology* 27 (December 1962), pp.357-373.